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814호 현대불교 25

2010년 12월 15일(음 11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 남을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걸 왜 판단 못합니까!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못한 것만 내 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동글게 너그럽게 말해 줄 수도 있고 너그럽게 행동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뻑뻑 우기고, 한 치라도 질세라 하곤 그냥 대립이 된다면 이걸 대립이 된 그 끈에 묶여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이 다 알아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참고, 모든 것을 그렇게 너그럽게 돌리는 그러한 사람은 하늘에서 다 안다고요. 근데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소용없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천지가 다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꽃 한 송이도 알고,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알고 있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예전에 배나무들끼리 사랑하는 걸 봤어요. 배나무가 저 10리 밖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전에 다니면서 어쩌다 쳐다보니까 배나무에 배꽃이 안 피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어, 너도 배나무로 생겼는데 왜 꽃이 안 피니?” 그러니까 배나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리저리 않습니까? 하하하... 그래서 바로 시집 장가를 보냈죠. 그랬더니 아유, 그 다음 해에는 그냥 이런 게 열렸어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개구리를 하나 봐도 나는 유심히, 그냥 아무렇게나 보지 않았습다. 곤충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살림살이와 뭐가 다릅니까. 자식을 위해서 잔등이아다 엮고 다니는 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누가 잡아먹는 거를 변연히 쳐다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응응” 하고 우는,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가 몸뚱이를 누가 잡아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차 사고가 났다거나 만약에 앓다 죽었다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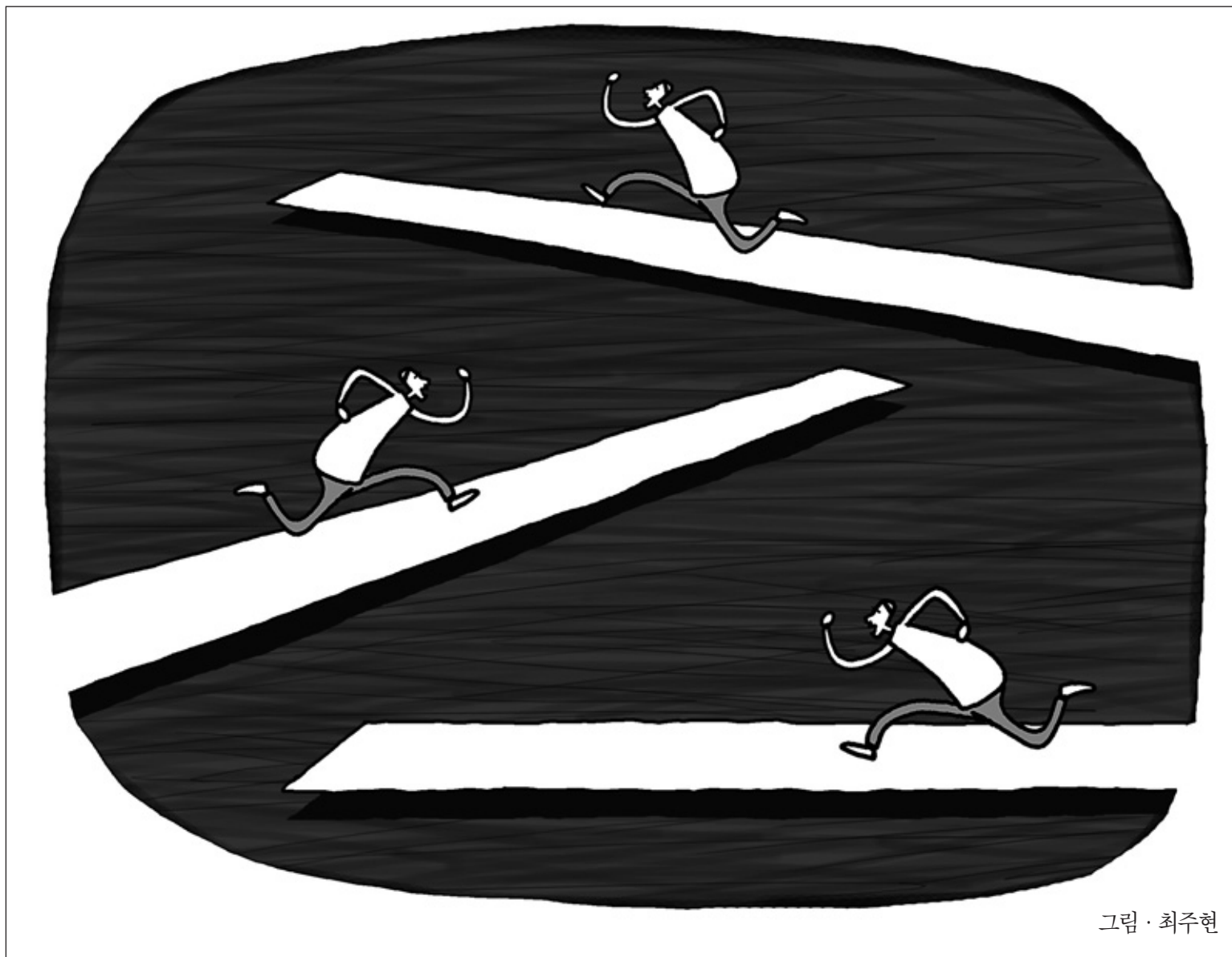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 그러면 끄공 앓고 그냥 울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사람은 정신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또 짐승들은 몸과 몸으로 잡아먹히고 잡아먹히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려면,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정신계를 추구하고 또 넓히고 지혜롭게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가는 대로 절실히 해집니다. 20년 후를 한번 내다봐 보십시오. 20년 후를 갖다가 끌어다가 요 눈 앞에 놓고

어떤가 한번 보세요. 과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또 요 눈 앞에 놓고 봐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어떤 광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렇게 달라졌어요, 모두가. 우리 하나하나 살아나는 게 모두 달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모두 집을 짓고 또 발전을 시키고 연구하고, 물질과학이라고 해서 연구하고 모두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심성과학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진실하면서...

우리가 마음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지금 세계에서 돌아가는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국내에서 돌아가는 상태를 잘 보시죠?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활해 버리고 이래요. 그러니 마음이 연결이 될 사리가 없어요. 무의 세계의 정신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사이가 없이 뛰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확 저질러 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확 해 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다못해 밥을 지

어도, 코드를 쫓아 나서 풀었다 하더라도 품을 들여야 하는데 품들일 새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이 저질러지겠습니까. 많은 일이 저질러지죠.

그래도 예전에 조그마할 때 일본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한테 해 끼치려고 안 해요. 남한테 해 끼치려고 안 하고 남한테 기대려고 안 하고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준단 말입니다. 마음이라도 조금 착하게 했다, 뭐 일을 해 줬다 이리하면 꼭 답례가 있죠. 하다못해 고사를 지내고 딱 한 덩어리 갖다 줘도 거기가, 접시예다가 그만큼 대가가 되는 물건을 꼭 답아서 보내요. 그때만 해도 ‘야, 지독하구나.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이 그랬더라면 그렇게 고생들을 안 당할 것인데, 우리 정신이 그랬다면 일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 그러한 정신은 높이 사야 되지 않나 하고요. 우리가 나쁜 것은 굴러서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량과 지혜, 넓은 마음을 우리가 아니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 내 속마음에서는 ‘아휴,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아주 안 되는데...’ 하고 자꾸 그렇게 들어가지만, 내 이 속마음이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기를 때 조그마한 것이 뭐 구멍인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풍인지 뭐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떨어진 다, 떨어진 다, 글로 가지 마라.” 하겠죠. 그러나 그 어린애는 부모의 심정은 아랑곳없어요. 자기 뛰어나가는 것만 좋아서 막 허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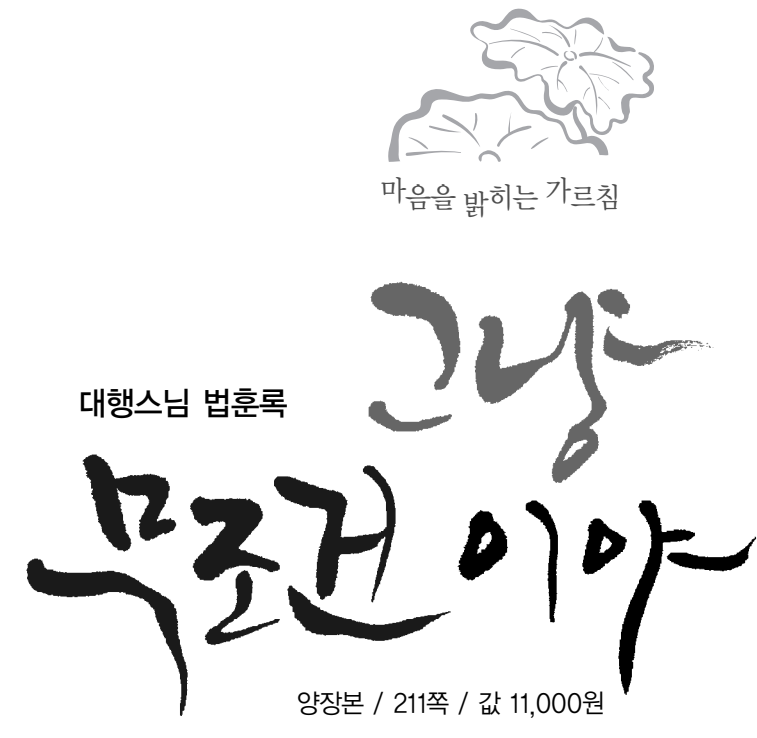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30년 법문의 경수가 담긴 책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실상의 가르침,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 본문 중에서

현대불교 현불삼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